

思考와 生活

韓稚振

一

일즉 스토앗 밀[스튜어트 밀]은 이러케 말했다. 「無智하고 生覺할 줄 모르는 돼지가 되어서 滿足한 것보다, 有智하고 生覺 있는 사람이 되어서 不滿足한 것이 낫다.」

事實인즉 사람은 生覺이 있는 까닭에 不滿을 가지게 되고 또한 生覺이 있는 故로 其不滿을 解除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故로 生覺 즉 思考는 人生問題의 提起者요 또 亦是 解結者이다. 이 問題의 提起와 解結의 連帶作用이 모든 人類的 進歩의 原動力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思考하기를 두려워말자. 思考는 그 性質上 現實均衡을 動搖시키는 까닭에 恒常 危險性을 갖고 있다. 하기 때문에 思考를 할냐는 이는 모든 위험성을 무릅쓰고 突進하는 精神이 必要하다. 그러면 우리는 왜 生覺을 하며 또는 生覺 즉 思考라는 것은 무엇인가?

二

思考 혹은 思想이란 것은 大概 三四種의 뜻을 말한다. 첫째, 廣義로써의 意味는 무엇이든지 우리 頭腦로 通過하는 것이면 思考라 할 수 있다. 이럼으로 頭腦는 思考하는 器官이라고도 하게 된 것이다. 이 意味에 있어서 空想, 思想, 夢想 갖은 것까지라도 思想이라 할 것이다. 勿論 이러한 모든 無順한 生覺--空想 其他 無根의 雜된 生覺--들은 그런 生活에게 有益될 것이 없겠다. 無秩序, 無目的, 無事實을 表含한 生覺은 도리혀 害됨이 莫甚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無節制的 思考는 禁하여야 하겠고, 一般教育이란 것은 如此한 心理的 濫費를 經濟하려 하는 것이다.

둘째의 思考의 意義는 무엇이든지 듯고 또는 보지도 못한 여러 想像作用에 限하여 되는 思考를 말함이다. 이것은 小說作家나 혹은 유토피아 學說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現象이다. 비록 事實로써 證明은 하지 안이 했다 하드

래도 單只 無根의 것을 想出하여 제대로 組織 잇고 順序 잇게 形成해 노을 수 잇는 것이다. 그러나 이자위 想像作用으로만은 智識--事實에 根據한 智識--을 産出치는 못한다. 臨時的으로 엇던 感情에 衝動되어서 혼이 有識하고 有組織한 小說, 詩 갖흔 것을 造出하는 것이다.

셋재로 思考의 定義는 權威的 思考이니, 이것에 依하면 多小 根據와 理由는 잇게 他人이 思考해 노흔 것을 그대로 採用하는 것을 名稱함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밋고 使用하든 智識 혹은 習慣을 아모런 批評도 업시 그대로 輸入하는 것이다. 勿論 他人의 意見을 採用함에도 多數 理由 즉 根據를 붓쳐 가지고 할지나, 그 理由나 그 根據를 自我的 努力으로 다시 探究, 證明하지 안코 또 亦是 既證된 事實을 採用하게 되는 것은 例事일 것이다. 이것은 普通人들이 生覺하는 現象일 것이다. 이 普通人的 思考作用을 狹窄하게 眞正 事實的 根據에 立脚하는 새에 비로소 第四種 思想作用 즉 科學的 思考作用이 되는 것이다. 이 思考作用은 大端히 必要的인 것이다.

그런 故로 넷재의 定義인 이 科學的 思考는 엇더한 信任의 根據와 그 結果될 것을 細密 調査하고 證明하는 作用이다. 假令 朝鮮은 二千萬 人口를 가 졌다 할 것 갓흐면, 이 命題는 事實的 調査에 比準하여 設立된 것이여야 한다. 그런 故로 이 思考作用에는 꾸준히 事實들을 研究, 調査하며 査라서 그 事實들의 傾向하는 結果 等を 探證하는 것이 包含한 것이다. 이것은 自發的 이요 意識的이요 또는 目的的이 되지 안이 하면 안이 된다.

科學的 思考는 原理나 假定說의 根本 地臺를 探知하는 싸답에 事物에 個體的 性質을 分析하기에 爲主한다. 이 思索作用은 事物의 個體性을 指定한다. 例하면 이 馬는 黃色이 안이요 黑色이다 하면, 이 黑色은 黃色을 除去하고 馬에게 指名한 것이 된다. 또는 그 馬가 蹴踢의 惡性을 가졌다 하면, 그 馬는 安馴한 馬와는 分立해진다. 우리는 이러한 事實 分別에 依하여 거기에 適當한 行動을 하게 된다. 이럼으로 科學的 思考에는 반다시 거기에 合當한 反動 즉 活動이 起한다. 여기서만 理論과 實行의 合一을 볼 수 잇다.

三

以上에 論述한 四種의 思想은 勿論 各各 獨立하여 存在하지는 안이 한다. 이 四種은 彼此 連結되어 作用하는 것을 이저서는 안이 된다. 이제 엇던 步行人이 길을 갔다가 가분작이 日氣가 선선함을 깨닫고 空中을 쳐다보았다 하자. 그는 日氣가 흐린 것을 보고 推測하기를 아마 雨가 降할가보다 하여 自己의 步行하든 것을 催促할 것이다. 우리는 이 步行人의 以上 갖흔 動作에 就하여 몇 가지 包含된 條件을 取得할 수 잇다. 그 行人은 一, 日氣가 선선

한 것을 感한 事, 二, 그로 因하여 空中을 보게 된 事, 三, 雲한 것에 依하여 雨降하리라는 推測을 하게 된 事, 四, 그 推測에 依支하여 自己의 步行을 催促한 事 等일 것이다. 勿論이 四種의 行動은 그 性質上 各各 相異하나, 그러나 一律로 聯結된 것이 分明하다.

爲先 日氣를 선선하다 感하여 가지고 왜 日氣는 前과 달니 선々한가 하는 好奇心이 生起하였다. 이 好奇心을 그 行人으로 하여금 空中을 쳐다 보았스니 곳 이것이 調査, 探究의 作用이다. 그 調査한 結果에 推測을 하게 되었다. 이 推測은 事實에 依한 結論이다. 이 結論--비가 오겠다.--에 依하여 步行을 빠르게 하였다. 그런즉 우리가 學術語를 使用하여 以上의 思考의 行動을 說明하자면, 첫째 好奇心이 必要하고 둘째 探究, 實證이 있고, 셋째 推測이 生起고, 넷째 實行이 빠른 것이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好奇心은 問題를 提起하며 그 다음에 이 問題를 解結할 作定으로 調査하게 되고, 그 調査에 依하여 結論이 作成되는 것이다. 이까지만 오면 實際 行動은 必然으로 빠른 다.

以上 論意에 依하여 思考作用에 必有하여야 할 것은 첫째 探知性이요, 둘째 꾸준히 繼續하는 性質이요, 셋째는 勇斷力이다. 이 條件을 缺如한 즉 個人의 思考는 가난한 內容을 갖게 된다.

四

人生 生活에 思考는 絶對로 必要하다 하는 것은 더 贅言할 것이 없겠다. 生覺 있는 사람은 第一日 무슨 問題를 當面할 때에 盲目的 衝動에 쫓니여 行動치 안는다. 最善을 爲하여 判斷上 躊躇하고 躁心한다. 過去의 經驗과 將來의 된 結果를 預測, 綜合하여 現實에서 엇지할 것을 斷案한다. 그런즉 그의 思考的 行動은 當場 現實을 썬 事實을 測推하여 現實의 行動을 決定하는 것이다.

只今 存在치 안는 것과 將來의 것을 根據하여 事爲를 作定하는 進行은 모든 人工的 計劃의 作成으로 因하여 可能케된다. 思考하는 사람은 自然의 모든 危險을 避키 爲하여 모든 口號를 만드려 늦는다. 海上에는 浮漂를 썬워 노으며 海邊에는 燈臺를 樹立해 늦는다. 이리하여 將次 來한 一般 위협을 미리 指示해둔다. 思考作用이란 것은 將來를 預測하여 現實 生活의 安全을 도 으려는데 그의 全的 價値가 있는 것이다.